

“韓 LCC 꾸준히 성장 ‘1주방 1사업자’ 규제 풀 ‘공유주방협의체’ 설립 시장 위축 회복할 것”

보잉이 바라본 글로벌 항공 전망

LCC 10년새 신규노선 18배
동북아 승객수송력의 핵심
신형 상용기 1420대 필요



랜드 틴세스 보잉상용기 마케팅 부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항공 시장 전망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항공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했다. 보잉은 동북아시아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역내 승객수송력과 항공 교통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는 랜드 틴세스 보잉상용기 마케팅 부사장이 맡았다.

/뉴시스

보잉이 국내(한국) 항공 시장에 대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잉은 1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항공 시장 전망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항공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전망했다. 보잉은 동북아시아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역내 승객수송력과 항공 교통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는 랜드 틴세스 보잉상용기 마케팅 부사장이 맡았다.

랜드 틴세스 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동북아의 LCC 수는 3배, 승객수송력은 6배 증가했다. 특히 LCC들은 지난 10년 동안 231개의 신규 노선을 취항했고 이는 10년 전 대비 18배 성장한 수치”라며 “한국의 LCC들은 승객수송력의 47%를 담당하고 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의 LCC들은 동북아시아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전체 LCC 교통량의 6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LCC들의 성장세와 역내 대형항공사의 항공기 대체 수요를 기반으로 향후 20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항공사들이 2038년까지 1420대, 3150억 달러에 이르는 신형 상용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틴세스 부사장은 “향후 20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 도입되는 모든 신형 항공기의 70% 이상이 이같은 대체를 목적으로 할 것”이라며 “지난 여름 파리 에어쇼에서 보잉은 대한항공과 장거리 노선용 상용기를 일부 대체하는 목적

으로 787 드림라이너 3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잉은 글로벌 상용 항공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발표했다. 전세계 상용 항공 서비스 시장 규모는 향후 20년간 지속 성장해 9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약40%,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5000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항공사는 상용 항공 서비스에 4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한국 항공업계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틴세스 부사장은 “LCC업계가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지정학적인 이슈·외환 리스크들의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항공여객수·교통량 등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항공업은 언제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던 시장이다. 비행을 통한 여행이라는 것이 오늘날 비즈니스에도 필수 요소이고 일상에서도 여가 생활이 중요해져 분명 회복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배민, ‘배달용 시간제 이륜차 보험’ 출시

KB손보 등과 맞손… 내달 적용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시간제로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K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업체 ㈜스몰티켓과 손잡고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해 11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3사가 합작한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은 국내 최초로 보험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 상품이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도입한 시간제 배달 근무 방식인 ‘배민커넥트’를 위해 탄생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배민커넥트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 소유의 이동 수단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가정용 이륜차보험을 K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배달 근무를 하는 동안 시간 단위로 유상운송보험이 자동 적

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보다 편리하고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배달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받아도, 라이더가 기존에 가입한 차량 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은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안전망제도 개선 방향에도 부합한다. 기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보험료가 높고 보험사에서 가입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남는 시간에 배달 근무로 추가소득을 얻으려던 이들이 감수해야 했던 보험 사각지대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상품 승인 전까지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2514@

‘위국’,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관심 ↑
24곳 참여… 협의체 내달 출범 예정
위생·안전 등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늘어나는 공유주방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공유주방 협의체가 생긴다.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유주방의 위생점검과 안전 등 문제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공유주방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넷째주 공유주방 업체들이 모여 공유주방 협의체 발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공유주방 가이드라인은 정해졌고, 협의체는 현재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협의체는 오는 11월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주방 1사업자가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은 위법이다. 하지만 요식업 창업이 늘고, 미국 등 해외에서 공유주방이 증가하면서 식당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유주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위국이 공유주방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년간 한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조리를 할 수



공유 샌드박스 통과로 한 주방에 여러 사업체가 등록할 수 있게 된 위국 사지점. /위국 홈페이지

있게 됐다.

위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유주방들에 자체 관리를 요구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살리고 공유주방을 법제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는 “이 정도는 지켜야 공유주방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다는 것을 정한다”며 “협의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가진 회사들만 공유주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주방 협의체는 공유주방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자체 규정을 만든다. B2B 유통 품목을 주로 만드는 ‘식품제

조형’ 공유주방은 위국이, 배달을 중심의 요식업이 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인 ‘딜리버리형’은 먼슬리키친이, 시간대를 나눠 주방을 사용하는 ‘타임셰어링’은 나누다키친이 대표가 되어 공유주방 규정을 만든다.

공유주방 위국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김기웅 대표는 “첫 회의에 참석한 곳이 24개 정도가 된다”며 “그중 일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곳을 제외하면 협의체 정회원사로 10개 남짓 업체가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스트키친·공유주방1번가·개러지키친·키친24·키친유니온·영영키친·키친엑스 등이 자격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한민 기자 ericbae1683@

“달 탐사사업 반드시 성공 시킨다”

항우연 찾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개발 역량 제고 강조
애로사항 청취 하고 격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달 탐사 사업에 대한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1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연구자를 만나는 등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국내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궤도선 중량, 연료용량 등 기술적 난제와 연구자간의 이견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항우연 자체점검과 외부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발사일정을 19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나, 연구현장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



최기영 과기부 장관 /뉴시스

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직접 항우연을 찾아 사업단을 찾아 사업단 연구자와 외부 점검평가단 등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최 장관은 국내 최초의 고난도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달 탐사 사업단의 일선 연구원들을 먼저 찾아 오찬을 함께 하면서 연구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 고난도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따르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자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해 줄 것을 격려했다.

이후 임철호 원장과 달 탐사 사업단장 등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한 항우연의 주요 간부진을 만나 달 탐사 사업에 대한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최초의 우주탐사 도전인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간 달 탐사 사업의 객관적 원인 진단 및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점검평가단의 우주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만나, 여러 전문가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다양한 의견에도 가감 없이 귀를 기울였다.

최기영 장관은 “오늘 경청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구현장을 중심으로 달 탐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시몬스 ‘60수 새틴면 100%’ 케노샤 베딩 신제품

시몬스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 베딩 신제품(사진)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케노샤’는 시몬스 침대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의 베딩, 피니처, 프래그런스, 베스 컬렉션 등 ‘시몬스 룩’의 침실 공간을 완성해줄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신제품 ‘베네딕트 리아’는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새틴면에 과감한 벨벳 컬러 라인 디테일을 더해 감각적인 침실 분위기를 연출한다. 호텔 베딩에서 접할 수 있는 특유의 고급스러운 60수 새



틴면 100% 소재가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한다. 얇은 솜 패딩이 내장돼 있어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야놀자 레저큐

‘남쪽빛 감성여행투어’ 3종

야놀자 계열사 레저큐가 부산관광공사와 거제, 통영, 남해 인기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남쪽빛 감성여행 투어패스 3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쪽빛 감성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하나로, 부산시가 기획한 부산·경남권 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레저큐와 부산관광공사는 남쪽빛 감성여행의 일환으로 지난달 선보인 부산투어패스에 이어 거제, 통영, 남해 투어패스를 신규 출시했다. /구서윤 기자